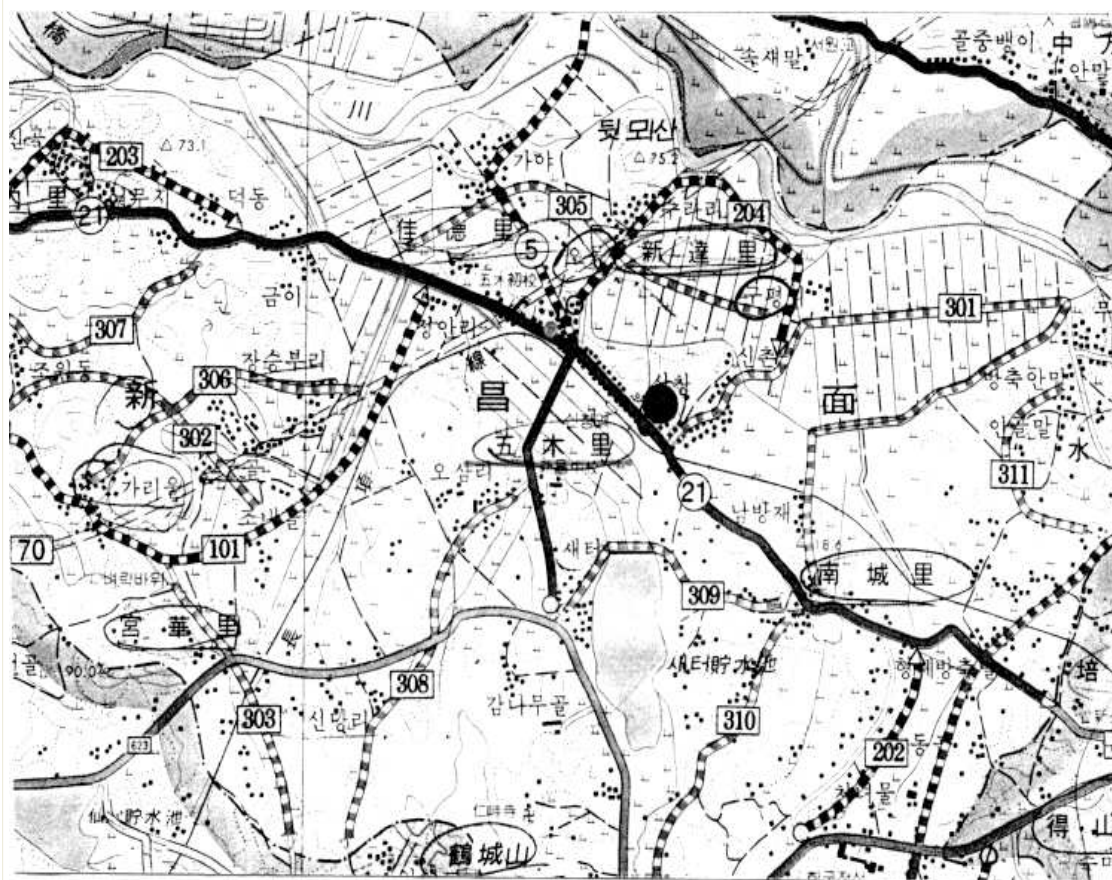


오목리·五木里

<오목리 위치도>



☒ 오목, 새터, 오사미 마을 (오목리)

오목3리는 오사미 마을이라 하며, 감나무골 북쪽 새터 서쪽에 있는 마을로 원래는 영인산, 도고산, 설화산, 광덕산, 학성산 5대 명산이 안아주는 형국이라 하여 오산동이라 하였는데 연안 이씨들이 360여년 전에 이곳에 낙향하여 주민들을 교육시키자 삼강오륜을 잘 지키

는 마을이라 하여 오사미라 부른다고 전해내려 오고 있다.

<조사당시 오목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오목 마을은 위도 36-48-00, 경도 126-56-20인 지역에 위치하며, 온양에서 예산 방향으로 가다가 득산리 육교를 지나 우측방향으로 남성리를 지나면 신창역이 소재한 오목이 나온다.

새터 마을은 위도 36-47-40, 경도 127-56-1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신창역이 있는 오목 마을 삼거리에서 5번 국도를 따라 오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오른쪽으로 700m 정도 들어가면 신창 저수지 옆에 있는 마을이다.

오사미 마을은 위도 36-47-10, 경도 127-56-0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신창역이 있는 오목 마을 삼거리에서 5번 국도를 따라 오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그곳이 오사미 마을이다.

2) 현 황

오목 마을의 인구수는 남자 303명, 여자 310명으로 총 613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197호에 이른다. 직업은 농업이 77호인 39%, 상업 19%, 기타 서비스업 42%, 조사 되었다.

새터 마을의 인구는 남자가 109명, 여자가 99명으로 총 298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총 75호에 이른다. 또한 농업이 73%, 상업이 4%, 기타 23%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오사미 마을의 인구수는 남자가 80명, 여자가 76명으로 총 156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55호에 이른다. 또한 농업이 60%, 기타업종 중에서 회사원이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연안 이씨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오목 마을	613명	303명	310명
새터 마을	208명	109명	99명
오사미 마을	156명	80명	76명

- 생 업

구 분 마을명	계	농 업	상 업	기타서비스업
오목 마을	100%	39%	19%	42%
새터 마을	100%	73%	4%	23%
오사미 마을	100%	60%	-	40%

오목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논 56ha, 밭 21ha로 논이 많으며,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농기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이 있으며, 농경지에 비해 농기계가 적은 편이며, 앰프를 겸비한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다.

새터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논 31ha, 밭 32ha로 서로 비슷하게 조사 되었고,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으로 조사 되었고, 문화시설로는 앰프를 겸비한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오사미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논 28ha, 밭 32ha로 조사 되었고 논과 밭은 비슷하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목리 중 가장 적게 농경지가 있고 농기계 현황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으로 조사 되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으며 앰프시설을 구비하였다. 오목리에는 농기계가 전체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오목 마을	77ha	56ha	21ha
새터 마을	63ha	31ha	32ha
오사미 마을	60ha	28ha	32ha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오목 마을	1개소	1개소	-
새터 마을	1개소	1개소	-
오사미 마을	1개소	1개소	-

오목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김씨가 15%로 가장 많고 이씨 10%, 최씨 11%, 기타 성씨는 64%로 조사 되었고, 모든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새터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최씨가 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김씨 24%, 이씨 28%, 기타성씨 15%로 조사 되었고, 연령층은 점차 노령화가 되고 있다. 오사미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최씨가 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김씨 12%, 이씨 10%, 기타 성씨 63%로 다양한 성씨의 분포를 알 수 있으며, 연령층은 점차 노령화 추세가 늘어 나고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최씨	기타성씨
오목 마을	197호	30호	20호	22호	125호
새터 마을	75호	18호	21호	25호	11호
오사미 마을	55호	7호	6호	8호	34호

- 최고령자

오목 마을의 최 고령자는 신용근씨로 90세이시며, 새터 마을의 최고령자는 맹 신자씨로 90세 이시며, 오사미 마을의 최고령자는 서씨 할머니로 87세이시다.

3) 자연 경관

오목 마을은 1922년에 신창역이 들어 서게 됨에 따라 마을이 번창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신달리와 바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길 따라 양쪽 옆으로 길게 늘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큰 산이 없고 작은 구릉지대들이 많다.

새터 마을은 신창 저수지가 있는데 1953년에 새터 저수지를 더 확장하여 신창 저수지라 하는데 낚시터가 있으며, 신창 중학교가 있고, 저수지 주위로 논이 있다. 멀리 학성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 작은 야산이 많다.

오사미 마을은 멀리 영인산, 도고산, 설화산, 광덕산, 학성산의 5대 명산이 안아주는 형국 이라 하여 오사미라 하였고, 감나무골 북쪽 새터 서쪽에 있는 마을로 학성산 줄기가 이 마을 뒤로 끝이 나며, 작은 야산이 많고 넓은 농경지도 없고 오목 조목한 작은 야산사이로 논과 밭이 있다.

4) 마을변천과정

오목리는 신창군 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교리, 오삼리, 시목리, 안정리 그리고 신달리 일부를 병합하여 오삼리와 시목리의 이름을 따서 오목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속했다가 1921년의 명칭변경으로 신창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오목 마을은 1922년 신창역이 들어서기 전에는 서너채의 집으로 된 자연 마을이었는데 신창역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번창하기 시작하여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여 정확한 형성년대는 알 수 없었다. 지금은 김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새터 마을은 예전에는 조씨가 모여사는 집성촌이었으나, 현재는 흩어지고 거의 없다고 하며, 한양 조씨는 9대까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서기 1700여년경 약 300여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지금은 최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오사미 마을의 절반 가량이 연안 이씨라고 하며, 3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마을의 90%이며,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11대째 살고 계신 이 원영씨 덕으로서 이원영씨 역시 연안이씨이다. 이것으로 볼 때 마을의 형성연대는 대략 서기 1650년경으로 약 350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6) 지 명

十 오목 마을의 지명

·오목리 : 신창역 마을의 총칭임. 1921년 경남 철도가 부설되면서 인근 야산을 벌채하고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 하여 오목이란 이름이 붙여졌음.

- 정안 : 신창역 서쪽에 있는 마을로서 전에 그릇을 만드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 안쪽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 장터 : 신창면사무소 근방 마을인데 이곳에 5일장이 서서 장터라고 불리었음. 이곳은 일제때 면사무소의 앞쪽이었는데 해방 후에 면사무소의 옆으로 이주하였음. 50년대까지만 해도 오목리에는 오목장터가 있었으며, 원래는 읍내리에 있었는데 오목리가 옆으로 크게 발전되어 면사무소와 경찰관 지서가 오목리로 옮김에 따라 장터로 이곳으로 옮겨 왔지만 지금은 없어지고 2일장과 7일장이 선다고 함.
- 신창역 : 1922년에 설치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오목리가 번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읍내리에 있던 학성면을 오목리로 옮기는 동시에 면 이름을 신창면으로 고쳤음. 이곳은 현재 까지도 장항선이 있음.
- 오거리 : 이곳을 다섯 방향으로 갈라지는데, 각각 읍내리, 화달리, 온양, 가덕리, 신곡 가내리로 나누어짐.
- 동령별 : 오목리 앞에 있는 들인데 새터 저수지를 확장하고 수로가 나면서 옥토로 변하였음.

十 새터 마을의 지명

- 새터 : 새터는 신창 옆에 있는 마을로서 새로 터를 잡아 마을을 이룩하였다고 하여 이름 지어졌고 그 앞내에 다리를 놓고는 새다리 즉 신교라 불렀음. 하지만 지금은 저수지에 잠겨 없어졌으며, 새터를 신교라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 다리가 놓이면서부터 임.
- 삼거리 : 새터 내에 있는 마을인데, 세 갈래 길이 있어 붙여진 이름임.
- 새다리 : 새터에서 꽃단봉쪽으로 내려오는 내에다 놓았던 다리인데 지금은 저수지에 들어가 없어졌지만 이 다리를 놓으면서 새터를 신교라 부르기 시작했음.
- 신창저수지 : 새터 앞에 있는 저수지. 1953년에 새터 저수지를 더 확장하여 신창저수지라 하는데 뉘시터로 이름이 있음.
- 감나무골 : 학성산 북쪽 기슭에 있는 마을인데 옛날부터 감나무가 많아 감나무골이라고 함.

- 꽃단봉 : 신창저수지 동쪽에 있는 산인데 진달래꽃이 많아 붙여진 이름.

十 오사미 마을의 지명

- 오사미 : 200년 전에 연안 이씨들이 들어와 살았음. 감나무골 북쪽 새터 서쪽에 있는 마을로 학성산 줄기가 이 마을 뒤를 지나 끝이 남.

7) 전 설

十 오사미 마을의 전설

70~80년전 시목동이란 마을이 생겼는데 오산의 "오"와 시목동의 "목"자를 따서 오목리라 부른다. 5명산이 옹호하는 것이라 그 산의 맥을 끊어 놓으면 흉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연을 원형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조상은 돌아가셨어도 고향을 지키기 위한 애향심으로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十 박수국 선생의 일화

함흥사립학교를 졸업한 1941년에 우리 고장인 오목 국민학교에 부임하여 6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역사 시간이었다. 학생들의 책상 위에는 모두 일본어로 된 책들이 펴 있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이들은 뜻밖의 질문에 멍해하며 이구동성으로 "조선사람입니다." "그럼 안중근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말이 끝나기 전에 한 학생이 "이또오를 죽인 의사입니다." 순간 선생의 눈에는 불꽃이 일었다. 아직 조선의 맥박이 뛰고 있구나. 그렇다! 조선인은 죽지 않는다. 저 초롱초롱한 눈들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조선의 기둥들이다. 저 아이들의 가슴속에 조국 광복에 굳은 의지를 심어주자, "여러분은 분명한 조선사람입니다. 조선인은 조선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말로 된 일본 역사책입니다.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배우니까?" 선생은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치기 전에 한글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칠판에 하얗게 새겨진 ㅅㄴㄷㄹㅁ... 아이들과 선생의 눈동자는 빛났다. 아이들이 하나 하나 글을 깨우칠 때마다 선생의 눈시울이 더워지곤 하였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르쳐야 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다. 하늘의 도우심으로 아이들은 한글을 깨우칠 수 있게 되었다. 선생이 밤새워 써온 것으로 아이들은 조선의 역사를 배웠다. 그날도 역시 몰래 역사 수업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침 교실을 순찰하던 교장 선생이 이 광경을 보았다. 수업을 당장 중지되었다. "뭐 조선인한테 조상이 있다구! 조선인한테 무슨 조상이고 무슨 역사란 말이나 조선인은 황국의 신민이라는 걸 모르나?" "조선인은 조선인이다. 너희 일본놈들이 우리 조선인이 될 수 없듯이 조선인이 황국의 신민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 조선인들에게 황국의 신민이 되기를 강요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선생은 주재소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한참 후에 선생은 학교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계절이 여덟 번 바뀐 후에 한 학생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의 형이 선생님께 이거 전해 드리래요. 그리고 선생님. 저요 한글로 제 이름 쓸 줄 알아요." 선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가슴은 더욱 뜨겁게 타 올랐다. 둘 사이에는 말없이 굳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한글과 역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고 편지 내용은 선생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 후에도 선생은 여러번 주재소에 끌려갔다. 먼저 번과 같은 이유였다. 심한 고문을 받으셨지만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감격의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소리를 듣고 선생은 그 기쁨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태극기를 그리던 중 문이 드르륵 열리고 교장선생님과 일본 순사가 들어왔다. 순사는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 일본이 망했다"하며 칼을 뽑아 들었다. 선생은 눈을 부릅뜨며, "네놈들이 우리 나라를 36년 동안 통째로 집어 삼켰으면 됐지 또 무엇이 남았다고 이러느냐?" 선생은 그리고 있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높은뜻, 굳은 신념, 자랑스런 조국애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은 조국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으셨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오목 마을의 상조회가 있었는데 총 인원이 80~90여명으로 돌아가시면 서로 도와 줄 수 있도록 하였고 50~60년간 이어져 왔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마을 행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새터마을은 여름의 초복 또는 중복에 노인잔치를 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마을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고, 8월 명절 즈음하여 마을 주변을 정리 및 제초 작업을 하여 항상 청결한 마을을 만드는데 온 마을이 합심을 하고 있고 연말에는 대동계를 통해 마을의 애경사 및 마을의 문제를 의논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어 마을이 합심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

오사미 마을은 아이를 낳거나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 집 앞에 황토흙을 뿌려 놓아 외부 사람의 출입을 막아 흉함을 없앴으나 현재는 행해지고 있지 않다. 또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기계가 보급되지 않아 품앗이도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기계화 되어 이웃간의 품앗이를 행하고 있지 않으나 호구수가 적기 때문에 마을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주민 모두가 협심하여 일을 순조롭게 치루고 있고, 청년회에서 위친계를 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서로 도와서 일을 치루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十 열사 박수국 선생

박수국 선생은 왜정시대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독립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고 초지일관한 분이시다. 등잔불 밑에서 아버지로부터 몰래 들던 독립군 얘기는 선생의 어린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는 애국심을 심어 주었다. 독립군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은 어서 독립군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일본 헌병을 혼내 줘야겠다고 다짐하곤 하였다. 오목초등학교에 부임해 오면서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등 아이들의 교육에 힘을 쓰다가 8. 15일에 일본군 헌병에 의해 목숨을 잃으셨다. 선생의 시신은 제자들의 손에 의해 화장 되었고 지금은 기념비가 세워진 곳에 묻혀있다. 「동포들이여! 이 터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을을 키우고 닦읍시다.」라고 쓰여진 충혼탑은 아산군 신창면 오목리 오목초등학교 교정에 있다.

10) 종교단체

오사미 마을은 기독교로서 신창감리교회는 신도수가 169명이며, 신창성락교회는 신도수가 56명으로 조사 되었다. 새터 마을과 오사미 마을은 교회나 절등 종교단체가 전혀 없다.

11) 공장현황

오목마을에는 한주식품이 있는데 지금은 휴업중이며, 새터 마을은 한흥 정미소라는 곡물 도정하는 곳이 1개소 있고, 광진산업, 성주 산업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으로 1개가 있으며, 천일휘드캄 회사가 있는데 조제동물 사료 제조업체 이다.

오사미 마을은 공장이 없다.

力 한주식품 : 오목 315-1. 인삼분말. 허가일 90. 7. 31. 면적 3,168㎡, 휴업중

力 한흥정미소 : 오목 992. 곡물도정. 허가일 93. 10. 13. 면적 2,950㎡, 종업원 수 3명

力 천일휘드캄 : 오목 169-9. 조제동물사료제조. 허가일 93. 6. 17. 면적 892㎡ 종업원수 5명

力 광진산업(주) : 오목 128-1. 자동차부품. 허가일 95. 10. 24. 면적 15,270㎡ 종업원수 120명

力 성주산업(주) : 오목 128-1. 자동차부품. 허가일 95. 10. 24. 면적 35,493㎡ 종업원수 46명

12) 마을의 특성

오목 마을은 신창역을 주위로 형성된 마을로 길을 따라 길게 늘어져 형성되었으며, 상업, 기타 서비스업종이 농업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마을로 도시화 됨에 따라 점차 시골의 인심이 사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공기 맑고 경치가 좋으며 인심이 후하고 마음씨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

새터 마을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마을로 옛날에는 고구마를 많이 심었지만 지금은 고추 및 각종 곡류들을 심고 있으며, 마을에 노인잔치나 기타 큰 행사를 서로 상부 상조 하여 마을의 정이 돈독하며, 훈훈한 마을이다.

오사미 마을은 일부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멀리 학성산이 있고, 작은 야산이 많아 오목 조목하게 농경지가 들어서 있으며, 아직도 씨족 사회의 많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 정이 넉넉하고 인심이 살아 있는 마을이다.